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김 충 만*

“ 본 보고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함께 발표한 2020년 농업전망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우유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의 가격, 생산, 소비 및 교역 전망과 향후 10년 동안 세계 유제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불확실성에 대해 다룸. ”

1 시장 동향

- 2019년 세계 우유 생산량 (젖소 81%, 버팔로 15%, 염소, 양, 낙타 4%를 합산)은 1.3% 증가한 약 852만 톤을 기록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인도에서는 4.2% 증가한 192만 톤을 기록했지만, 교역량이 적기 때문에 세계 유제품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함.
- 세계 3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유럽연합, 미국의 우유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 이들 3개국의 유제품 내수 소비가 안정되어 가용한 수출용 신선 유제품과 가공품이 증가함. 세계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2019년 우유 생산량이 3.6% 증가함. 특히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유제품 가격은 사실상 거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가공유 이외의 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함. 버터와 탈지분유는 각각 유지방과 유고형분에 대한 기준 가격이 됨. 유지방과 기타 고형물은 전체 우유 중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 버터 가격은 2017년에 비해 계속 하락해왔지만 실질 가격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유지방 가격(버터)의 강세는 크림, 버터, 기타 전지 우유 제품에 대해 북미와 유럽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탈지분유 가격은 유럽연합이 조정 재고(Intervention Stock)를 매각하고, 2016년 톤당 1,698유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입한 이래로 낮게 형성된 가격에서 2019년 다시 회복되었음.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농업경제학 박사과정(ck24@illinois.edu).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2 주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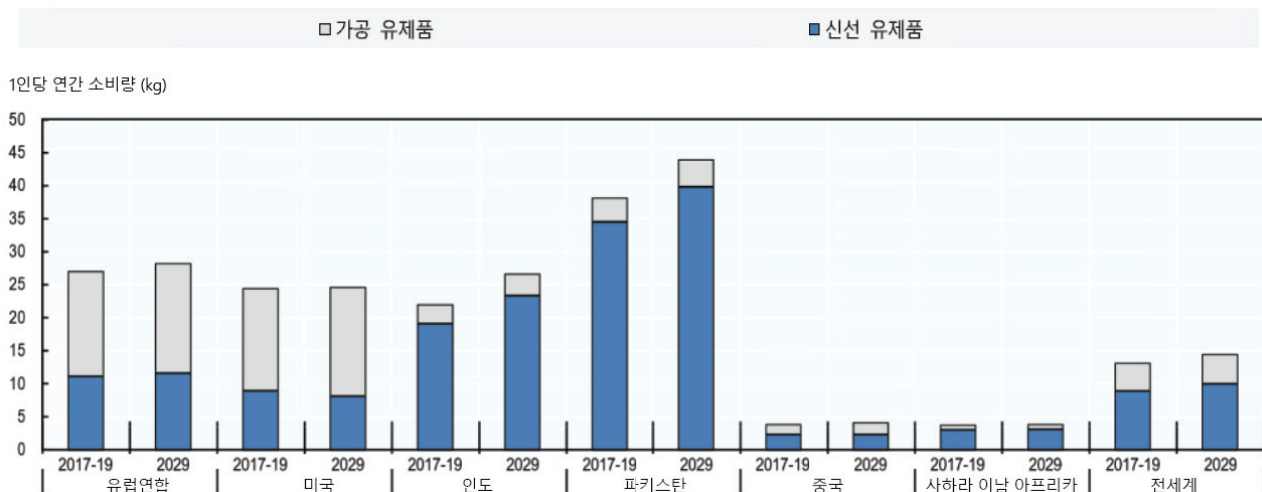
- 우유는 그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 없으므로 착유 즉시 처리해야 함. 또한, 대부분의 유제품은 가공되지 않거나 부분 가공된(저온 살균 또는 발효) 신선 유제품 형태로 소비됨.
 - 특히,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지역은 인구 증가 및 소득 증대의 영향으로 신선 유제품의 소비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1인당 신선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난 수년간 유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작은 규모이지만 대체재인 식물성 유제품 소비량이 동아시아, 유럽 및 북미 등지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치즈 소비의 대부분은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유럽과 북미에서 늘어나고 있음. 아프리카에서는 탈지분유의 극히 일부만 자국 내에서 공급되며 그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아시아에서 버터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성장은 현재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우유는 세계 시장에서 주로 가공된 유제품의 형태로 거래됨. 중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 수준은 낮지만, 전지분유를 비롯해 가장 중요한 유제품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러시아 연방, 멕시코, 중동, 북아프리카는 유제품의 중요한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인당 유제품 소비가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을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와 함께 유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유제품 교역은 무역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크게 바뀔 수 있음.
 - 예를 들어, 많은 양의 치즈 및 기타 유제품이 유럽연합과 영국 간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Brexit와 같은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무역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북미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유제품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우유 소비량이 많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아직 국제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두 국가가 무역에 참여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1. 1인당 고형분 형태의 가공 및 신선 유제품 소비 규모



주: 우유 고형물은 각 제품에 대한 지방 및 비지방 고형물의 양을 더하여 계산됨. 가공 유제품에는 버터, 치즈,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가 포함됨.
 자료: OECD/FAO(2020), p.176.

■ 환경 문제와 각종 규제는 이러한 전망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임.

- 많은 국가에서 유제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 가스(GHG)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축 사육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질소와 인산염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낙농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COVID-19는 유제품 비중이 높은 외식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해 국내외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식품수급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3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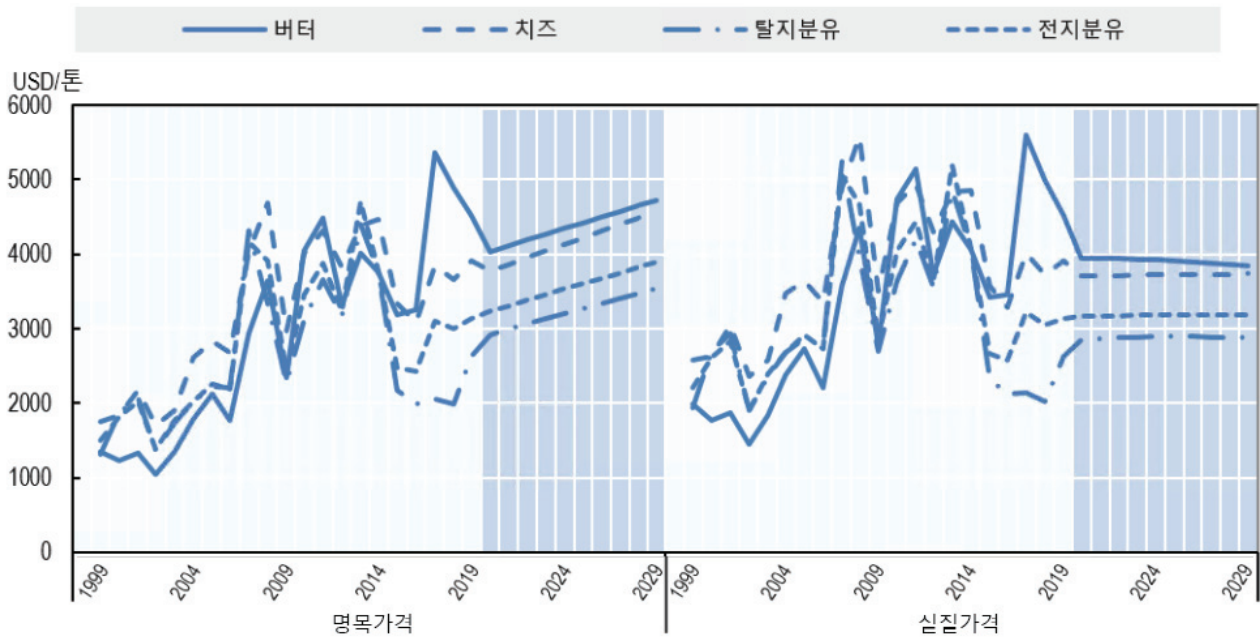
- 유제품에 대한 국제 기준 가격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주요 수출업체의 가공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데 두 가지 주요 기준 가격은 버터와 탈지분유임.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2015년 이후 버터 가격은 다른 유고형분에 비해 높은 유지방 수요로 인해 탈지분유 가격보다 크게 상승함. 이러한 양상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 격차는 지난 5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그림 2>.

| 그림 2. 유제품 가격 |



주: 실질가격은 미국 GDP 디플레이터 (2019 = 1)을 적용한 명목가격임.
 자료: OECD/FAO(2020), p.177.

- 유럽연합에서 조정 재고(Intervention Stock)를 완전히 처분하면서, 2019년 탈지분유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실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연간 버터 가격은 2017년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 하락하고 있음. 버터 가격은 예측 기간 다른 농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실질가격 기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지분유와 치즈의 국제 기준가격은 버터와 탈지분유의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국제 유제품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낮은 무역 점유율(전 세계 총 우유 생산량의 8 %)과 소수의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가지는 우위, 무역 정책 환경의 제약에서 비롯됨. 다만 신선 유제품이 전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온 살균된 우유에 비해 가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자국 내 시장 가격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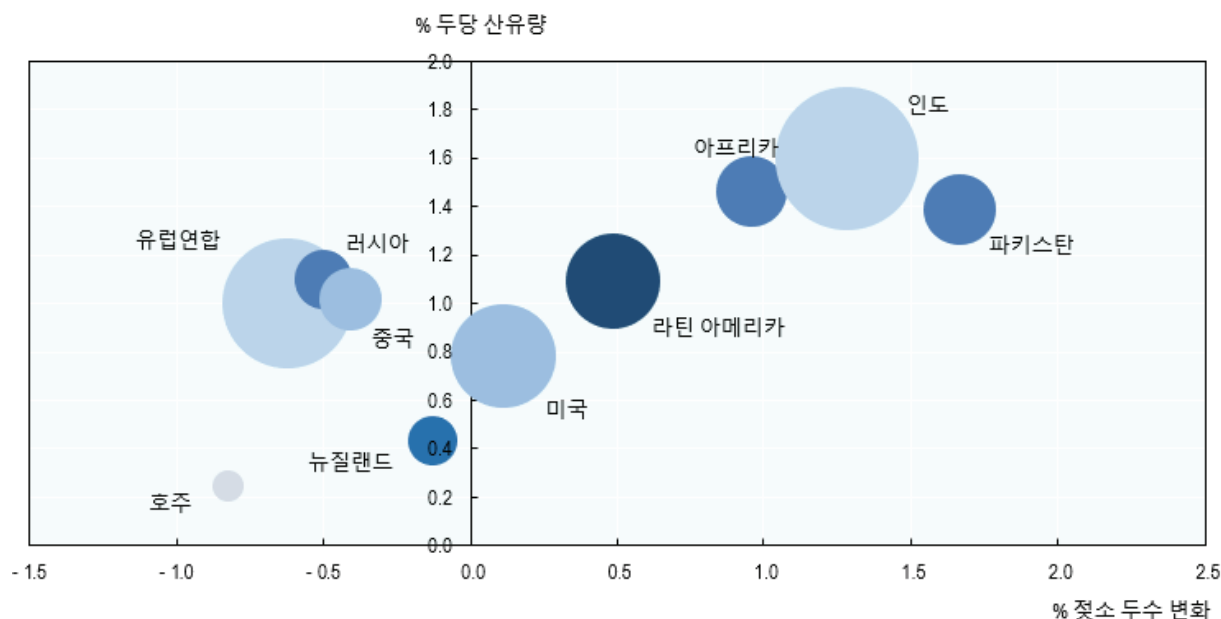
4 생산 전망

-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연 1.6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29년까지 997만 톤).
 - 젖소 두수는 두당 산유량이 낮은 국가에서 더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젖소 두수 증가율(0.8%)이 평균 두당 산유량 성장률(0.7%)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두당 산유량 증가가 가축 마릿수 증가보다 생산량 증대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그림 3>. 생산성(두당 산유량) 증대의 동력으로는 생산 시스템 최적화, 동물 보건 개선, 사료 효율 개선, 유전학의 발전 등을 들 수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우유 생산량 증대에 절반 이상 기여함은 물론 2029년에는 그 기여율이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두수의 증가와 장소의 제약은 집약적인 초지 사용을 요구함. 두 나라 모두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선 유제품이 거의 없으므로, 생산된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경우 문화적인 이유로 유제품과 쇠고기 생산 간의 연관성은 다소 적음. 파키스탄에서는 대개 유제품 생산의 부산물로서 쇠고기를 생산함.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럽연합의 생산량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젖소 사육 규모는 감소하겠지만(연간 -0.6 %), 두당 산유량은 향후 10년간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연합에서는 초지와 사료 기반 시스템의 혼합 형태로 생산하며, 유기농 우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임. 현재 오스트리아, 스웨덴, 라트비아, 그리스, 덴마크에서는 젖소의 10% 이상이 유기농으로 사육됨.
 -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약 3%가 유기농인데, 두당 산유량은 떨어지지만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있음. 일반적으로 자국 내 수요(치즈, 버터, 크림 등)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출용임.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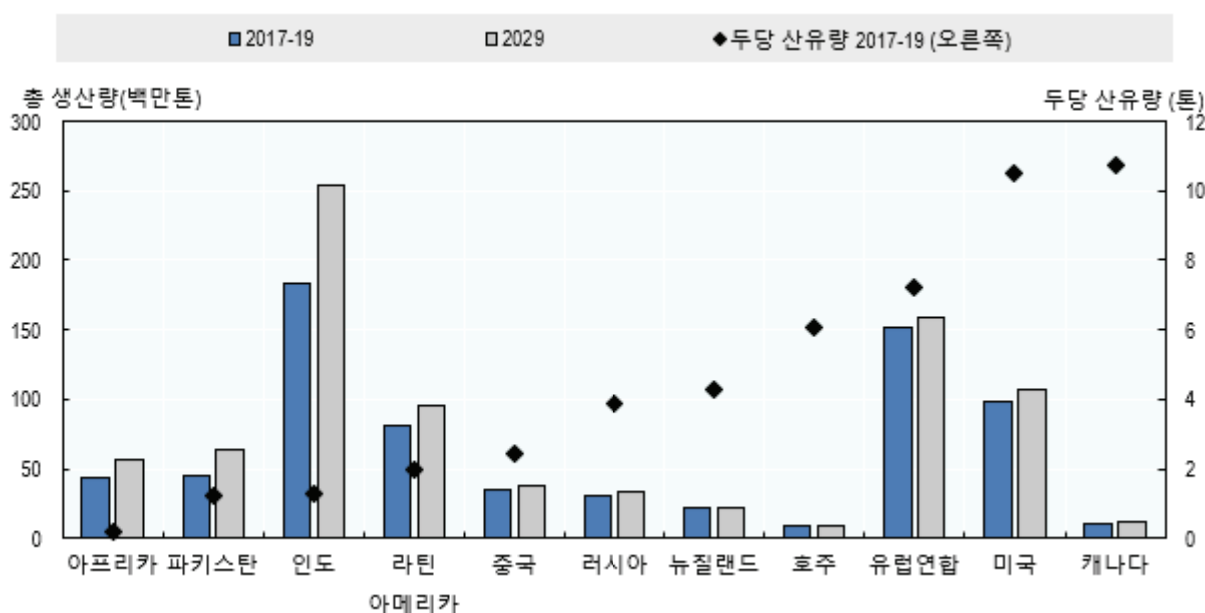
| 그림 3. 2019년 - 2029년 젖소 두수와 두당 산유량의 연간 변화율 |



주: 원의 크기는 2017-19 기준 기간의 총 우유 생산량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20), p.178.

- 북미의 경우, 초지 기반의 생산 비중은 작고, 고도로 전문화된 사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균 두당 산유량을 보임(그림 4).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지방에 대한 내수 수요가 커짐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탈지분유를 수출할 것으로 보임.

| 그림 4.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우유 생산과 두당 산유량 |



주: 생산량인 소, 버팔로, 낙타, 양, 염소 젖을 모두 포함해 계산됨.
 자료: OECD/FAO(2020), p.179.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수출 중심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우유 생산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주로 초지 기반으로 생산하며 두당 산유량은 북미와 유럽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하지만 효율적인 초지 관리와 연중 방목으로 경쟁력이 있음.
 - 이용 가능 토지의 한계와 늘어가는 환경적 제약이 성장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나 사료 기반 생산으로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자국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COVID-19에 따른 무역 조치 등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향적인 양상을 보일 것임.
- 아프리카는 우유 생산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두당 산유량이 낮고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염소와 양에서 나옴. 대부분 방목하며 육류 생산, 저축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육함. 동일한 지역에 반복적으로 방목함에 따라 초지 사용이 매우 집약적임.
 - 향후 10년간 전 세계 가축의 약 1/3이 아프리카에서 자랄 것이며 전 세계 우유 생산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된 우유의 30% 미만이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청(또는 유장, Whey) 분말과 같은 형태로 가공될 것임. 버터와 함께 치즈에 대한 직접 수요가 많으며, 유럽과 북미에서 유고형분을 특히 많이 소비함.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주로 교역용으로 생산되고, 식품 가공 특히 제과, 유아용 분유 및 베이커리 제품 생산에 사용됨.
 -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의 생산량은 각각 연 1.6%, 1.6%, 1.7% 수준으로, 전체 우유 생산량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임.
 - 단, 치즈 생산량만 연 1.2%로 다소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낮은 성장률은 유럽과 북미 시장의 성장률이 낮기 때문임.

5 소비 전망

-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은 저온 살균 및 발효 제품을 포함하여 신선한 유제품 형태로 소비됨.
 -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신선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와 인구 성장에 따라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임.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전 세계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는 연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1인당 유고형분 소비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그림 1>.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1인당 소득과 지역적 선호를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1인당 섭취량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높은 데 반해 중국에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유고형분 전체 소비에서 가공 유제품(특히 치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 선호도 및 도시화와 함께 소득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과 북미에서 신선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지방 섭취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몇 년간 늘고 있음. 유지방 섭취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최근 연구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함.
- 치즈는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나, 치즈가 전통적인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도시화 및 소득 증가로 인해 햄버거와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치즈 소비도 함께 늘어남. 또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경우 제조 부문, 특히 제과, 유아용 분유 및 제빵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유제품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빠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러한 추가 수요에 대해서 액상유는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로 분유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일부 유제품, 특히 탈지분유와 유청 분말은 가축 사료로 사용됨. 중국은 사료용으로 두 종류 모두 수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발병으로 수요가 다소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6 교역 전망

- 부패하기 쉬운 우유의 성질과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약 8%만이 국가 간 거래됨.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로부터 중국의 액상유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남. 기준년도 수입량은 약 0.7만 톤이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연 3.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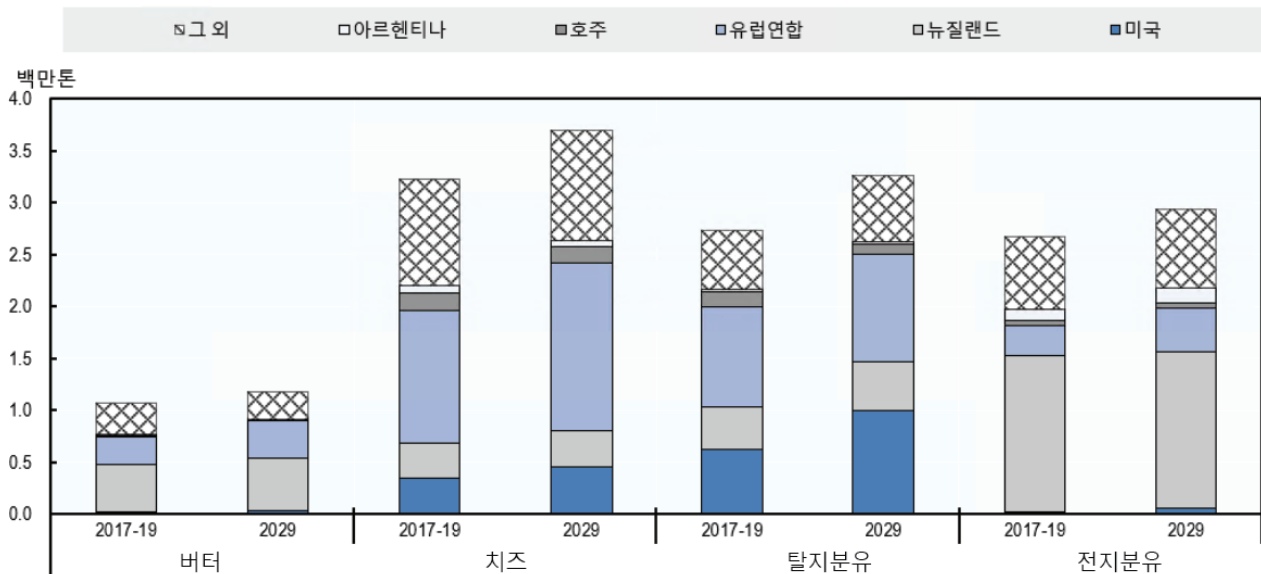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무역 점유율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대개 우유를 오랜 기간 저장하고 먼 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됨.

■ 유제품의 3대 주요 수출국은 유럽연합, 뉴질랜드, 미국이고 2029년 이 3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치즈 약 65%, 전지분유 68%, 버터 76%, 탈지분유 77%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그림 5).

- 전지분유의 경우 아르헨티나 역시 주요 수출국이며 2029년까지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몇 년 동안 벨로루시가 주요 수출국으로 부각되었는데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하고 있음.

| 그림 5. 지역에 따른 유제품 수출 규모 |



주: 생산량은 젖소뿐만 아니라 버팔로, 낙타, 양, 염소를 모두 포함해 계산됨.

자료: OECD/FAO(2020), p.181.

■ 2029년까지 유럽연합의 치즈 수출 점유율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4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19년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협정과 일본과의 무역 협정 비준의 영향으로 캐나다 및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영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는 2029년까지 치즈 수입 상위 5개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는 버터와 전지분유의 주요 생산국이며, 2029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각각 약 42%, 52%가 될 것으로 예상됨. 뉴질랜드와 중국 간의 전지분유 교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에서 자국 내 우유 생산 규모를 늘림에 따라 전지분유 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뉴질랜드는 치즈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되 생산량은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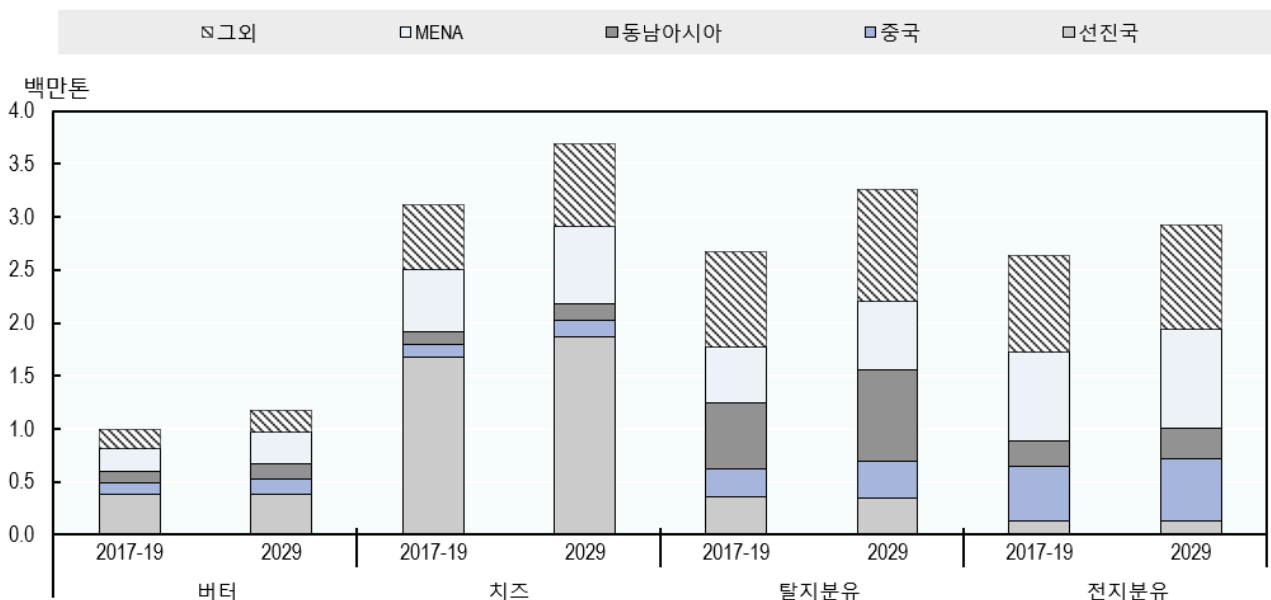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선진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들 수 있음(그림 6).

-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주요 유제품, 특히 전지분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대부분의 유제품을 오세아니아에서 수입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이 중국으로의 버터와 탈지분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주로 유럽연합에서 수입해오고 미국과 오세아니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분유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17부터 2019년까지는 선진국이 전 세계 치즈와 버터 수입의 약 54%, 39%를 차지했으나 이 비율은 2029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그림 6. 지역에 따른 유제품 수입 규모 |



주: MEN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의미하며 동남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자료: OECD/FAO(2020), p.182.

7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 COVID-19는 전 세계 모두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다만, 우유와 유제품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공급 사슬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되, 식품수급망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됨. 치즈와 같은 일부 유제품은 집 밖에서 많이 소비되나 (대표적인 예로 햄버거와 피자) 그 양이 감소할 여지는 있음. 팬데믹의 영향은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 국가 간 상호 작용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불확실해 보임.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예상치 못한 기상 현상 또한 세계 우유 생산의 제약이 될 수 있음. 특히 대표적인 생산 방식 중 하나인 방목 기반의 우유 생산이 불확실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음. 기후 변화는 가뭄, 홍수, 질병 등의 위협을 가중시키며 여러 방식으로 낙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예 : 가격 변동, 우유 생산성 감소 등).
- 환경법 역시 유제품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부 국가(예 :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는 낙농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이 총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관련 정책의 변화 역시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환경 법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가축 질병과 그 확산 또한 우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방염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형의 농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전염병인데 경제적으로 볼 때 우유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인식, 식별, 적절한 조치는 우유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됨. 한편, 유방염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항균제가 주로 사용되지만, 해당 치료법의 남용과 그로 인한 내성이 기존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함. 이 과정은 앞으로 10년간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몇 년간 북미, 유럽 및 동아시아 등지에서 동물성 유제품의 대체재로서 식물성 유제품(예 : 대두, 아몬드, 쌀 및 귀리 음료)의 역할이 대두되었음. 그 배경으로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 유제품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등을 들 수 있음. 식물성 유제품의 시장 규모는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그 성장률은 높음.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견해가 존재함.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제품 수요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함.
- 자국 내 정책 변화도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자리함. 캐나다는 2020년 이후 농업의 수출 보조금을 없애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결정으로 자국 유제품 산업의 큰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탈지분유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짐. 유럽연합의 경우 탈지분유와 버터의 고정 가격을 도입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새로운 무역 협정의 체결 및 변경 또한 유제품 수요와 교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많은 양의 치즈와 유제품이 유럽연합과 영국 간 거래되는데 그 지속성에 대한 여부는 Brexit 이후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달려 있음.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은 북미 유제품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임. 러시아 연방이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 내린 금수 조치는 2020년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규모는 금지 이전 수준에 도달하긴 어렵겠지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유제품

- 유제품 교역은 무역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규모를 빠른 속도로 늘릴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OECD/FAO (2020),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 FAO, Rome/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112c23b-en>.